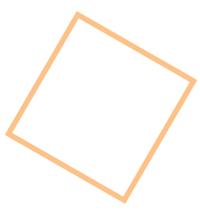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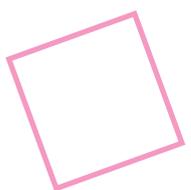




Looking for Contents, Design & New



2010 Report on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한국전자산업대전 결과보고서





CONTENTS

OutLine

- 04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0 개요
- 06 개막식 & 이벤트

Smart Life

- 08 ICT 'Beyond Smart'

Contents, Design & New

- 10 LIFE STYLE
- 12 "New Age, with New Goods"

Convergence

- 14 Digital Clothing "3D로 패션을 쇼핑한다."
- 16 Building IT "스마트 IT와 건설이 만났을 때!"
- 17 Car electronics "자동차도 IT이다."
- 18 Medical treatment '스마트병원 Dr. IT 를 소개합니다'
- 19 Broadcasting '이제는 디지털 방송의 시대로'



Cutting-edge Trend

- 21 3D '영상이 곧 현실이 된다.'
- 24 Green IT 'IT도 숨을 쉰다'
- 25 App World Expo '어플리케이션 오대양보다 넓은 새로운 바다가 되다.'
- 26 LED "한국을 거쳐 세계를 비춘다"

28 Parts & Components

Convention & events

- 30 IMD 2010 '대한민국디스플레이 세계를 날다.'
- 32 i-SEDEX 'No Power, Green Memory'
- 34 바이어 특집
- 40 Smart korea 2010

Results

- 42 Media Coverage
- 44 Statistical Results
- 46 2011 Korea Electronic Show Preview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 개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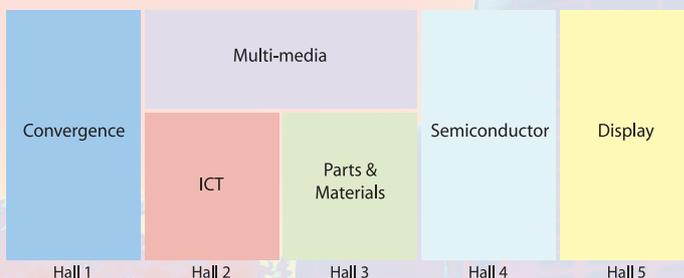
■ 개요

- 행사명 : 제41회 한국전자산업대전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0
- 일시 : 2010. 10. 12(화) ~ 15(금) 4일간
- 주제 : IT's my life
- 전시품목 :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산업용전자, 생활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등 약 2만5천점
- 장소 및 규모 : KINTEX 1~5홀
 - 면적 : 53,541m²
 - 참가업체 : 12개국 750개사 2,328부스
 - 관람객 : 55,242명 (해외바이어 1,823명)

■ 추진기관

- 주최 :  지식경제부  세계속의 경기도 
- 주관 :  KEA  KSEA  KDISA  kotra
- 후원 : 전자신문, KBS, MBC, SBS,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 전시관 구성



■ 부대행사

■ 컨퍼런스

- Creative Futures Forum
- IT Convergence Conference
- IT산업전망 컨퍼런스
- Global Cooperation Seminar
- 3D 융합산업 글로벌 컨퍼런스
- 스마트 미디어(스마트TV & 폰) 산업의 미래와 전망
- 3DTV 카메라의 현재와 미래
- 저탄소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IT산업 녹색성장 세미나
- ITC 특허 소송 및 모의재판 세미나
- 2010 의료-IT 및 에너지-IT 융합기술 로드쇼
- Micro-Joining & packaging Committee MPC2010 추계 심포지움
- 차세대반도체 공정장비 기술세미나
- 2010년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추계심포지움
- IMID / IDMC / Asia Display2010 학술대회

■ 바이어 상담회

- 인도 통신업계 초청 무역상담회
- 글로벌 기업 구매담당자 초청 무역상담회
- 러시아 전자업계 초청 수출상담회
- 중국 화창베이 유통상 초청 세일즈페어
- 중국 CECC(전자상회) 유통대표단 수출상담회
- 미국 3D 업체 초청 수출상담회
- 방송장비 구매단 수출상담회
- 반도체 관련업계 무역상담회
- IMID 2010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 이벤트

- APP World EXPO
- 브레인레이싱
- JOB Fair
- 디스플레이 이벤트 체험관
- 디스플레이 사진전



대한민국 전자IT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0 한국전자산업 대전'이 'IT is my lif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0월 12일에서 15일까지 4일간 경기도 일산 KINTEX에서 펼쳐졌다.

지식경제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주관한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은 전시면적 53,541m²에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세계시장 1위 제품은 물론 최근 각광 받고 있는 3D와, 타산업과 융합한 패션 IT, 의료 IT, 건설 IT 등의 융합 솔루션을 전시하여 차세대 전자IT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23개국 1,823명의 전자IT산업을 대표하는 바이어가 대거 참여하였고 참가기업으로는 삼성, LG, 하이닉스, 다이요유덴, 머크 등을 국내외 750개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 A new world opens with the 2010 Korea Electronics



첫날 개막식에서는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등으로 상징되는 "소통"을 주제로 한 탭 댄스 퍼포먼스로 전시회의 개막을 알렸고, 이어 댄스 곡 'Magic'과 'Madonna'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 그룹 '시크릿'의 축하무대가 이어졌다.

금번 전시는 앞으로 스마트폰 시대를 예고하는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스마트TV,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제품 및 관련 솔루션을 선보였고, 이 외 OLED, 브레인인터페이스, 미러리스카메라, 증강현실, 에코버블세탁기 등 다양하고 완벽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이번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로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전시회임을 다시한번 대내외에 천명하는 행사였다. 한편, APP World Expo, World 3D Expo, 융합포럼 등 차세대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 특히, 스마트폰 400만대 시대를 맞아 기발하고 유용한 앱부터 다양한 종류의 게임 앱을 선보여 전시회를 찾은 신세대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부대행사로 개최된 융합포럼은 국방, 농업, 건설, 조선 등 이종산업에 대한 IT 산업의 적용확대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정부관계자 및 기업, 연구소, 학계 등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Grand Fair



ICT

'Beyond Smart'

▶옵티머스7 윈도우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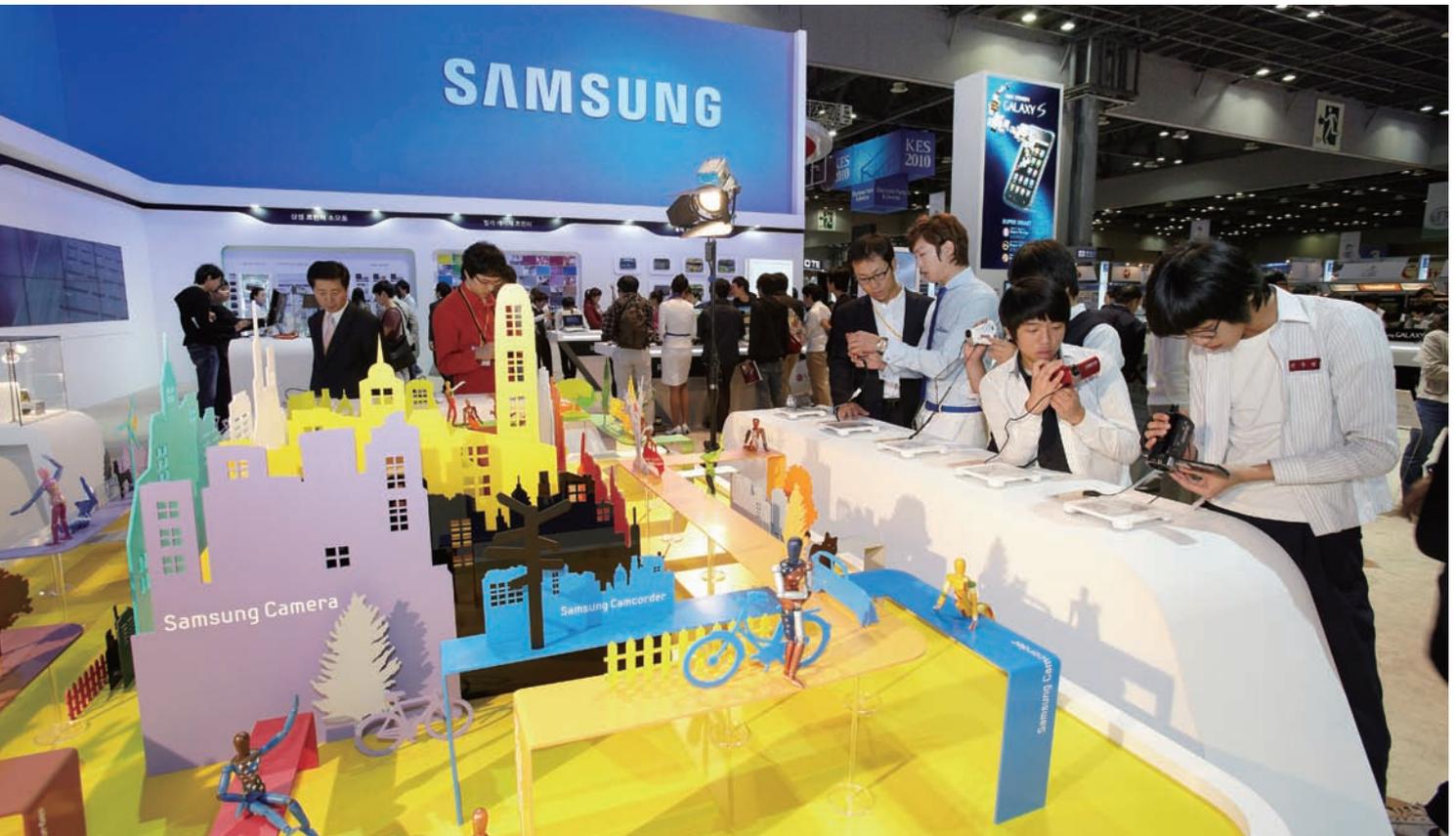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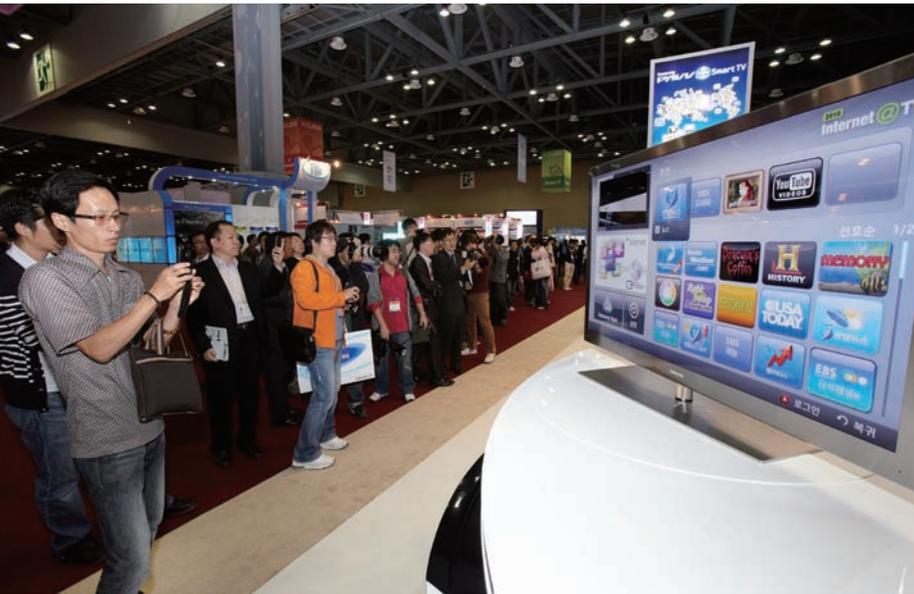
전세계적인 스마트 열풍을 증명이라도 하듯 한국전자산업대전 ICT 전시장내에는 스마트폰과 PC관련 제품 등의 최첨단 스마트 제품이 관람객을 맞이 했다.

LG전자는 'Smart Life, Smart LG' 라는 문구를 내세워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스마트폰 '옵티머스 원'과 '옵티머스 7&7Q' 등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내수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갤럭시S와 함께 갤럭시K도 선보이며 관람객의 발길을 모았다. 한국전자산업대전을 찾은 관람객이라면 전시장 내 눈앞에 펼쳐진 ICT 제품들을 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21세기 디지털세상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TV 체험존을 마련해 관람객이 TV용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TV의 영역을 넘어서 검색과 저장 등의 컴퓨팅 기능부터 카메라, 핸드폰, 노트북의 콘텐츠까지 대형화면으로 즐기도록 똑똑해진 스마트 TV는 우리 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가꾸어 줄 것이다.

▼삼성캠코더부스





▲삼성 인터넷 TV를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



▲삼성 3D카메라

▼엘지이노텍
원격컨트롤 시스템

▼삼성 NX100 카메라





▲삼성 프로젝터



▲엘지 로봇청소기 로보킹

Life Style

새롭고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 2010한국전자산업대전! 주거방식과 식생활 등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아이디어 가전제품을 한데 모은 생활가전관 (Living Consumer Electronics) 은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한 자리에 모았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저장 용량과 용적 효율의 지펠 냉장고, 세탁시간과 에너지소비를 반으로 줄인 버블에코 드럼세탁기, 진공청소기와 로봇청소기 등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스마트 가전을 주력으로 하여 멀티디스플레이 · 기능성

렌즈를 채용한 디지털카메라, 독특한 디자인의 PC와 캠코더, MP3, 최소형 모노레이저 프린터 등 다양한 제품도 전시했다.

▼삼성빌트인 부스





▲LG 생활가전관



LG전자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친환경 생활가전을 주로 하여 대용량 양문형 냉장고, '쿼드 디오스' 김치 냉장고, '트롬' 세탁기, 인체 감지 로봇 기술을 적용한 '휘센' 에어컨, 정수기, 이온수기, 의료용 진동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제품, '디오스' 빌트인 가전 등을 전시함으로써 세계인의 생활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50dB의 최저소음으로 청소하는 LG전자의 로보킹은 퇴근 후 밤늦은 시간에도 부담 없이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의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로봇청소기에 CCTV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집안 곳곳을 관제할 수 있는 이색적인 로봇을 소개했다.



▲삼성 버블에코 세탁기

▼LG 로보킹과 싸이킹청소기

"A New Age, with New Goods"



오디오, 테잎, CD를 지나온 현대인들의 디지털 음원에 대한 수요는 입는 오디오로까지 확대되었다. "소닉워크"사는 최근 입는 오디오시스템을 출시하여 국내외 바이어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국내 최대 전자 기술 연구소 ETRI는 가상세계 연동 실감 휘트니스시스템을 선보였다. 가정마다

있는 러닝머신에 인터넷 솔루션을 통합하여 원거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세계 어디든 원하는 장소에서 함께 워킹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젠 제주도 올렛길도 아파트 거실에서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파를 이용해 사물과 소통하는 시대가 성큼 다



◀소닉워크 입는 오디오

▼잉캠시스템의 3D 프린터로 인쇄한 결과물





▲아바타를 이용한 런닝머신
 ▶뉴로스카이의 마인드셋



▲넥스트윈도우의 전자칠판



가왔다. 미국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뉴로스카이'사는 브레인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 컴퓨터 게임은 물론 자동차 경주, 사물공중부양 등 다양한 시연을 선보였는데 현재 구글, BMW, 닌텐도, 소니 등 세계적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우리의 의식주 공간에서 함께하는 다양한 신기술, 신제품들이 대거 출시되었다. 수채화보다 사실적인 디지털 입체 프린팅 기술, 터치전자칠판, OLED감성조명, 초소형 스피커와 캠코더 등이 전시기간 내내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초소형캠코더



▲초소형 오디오와 스피커



▲▶ 디지털
클로딩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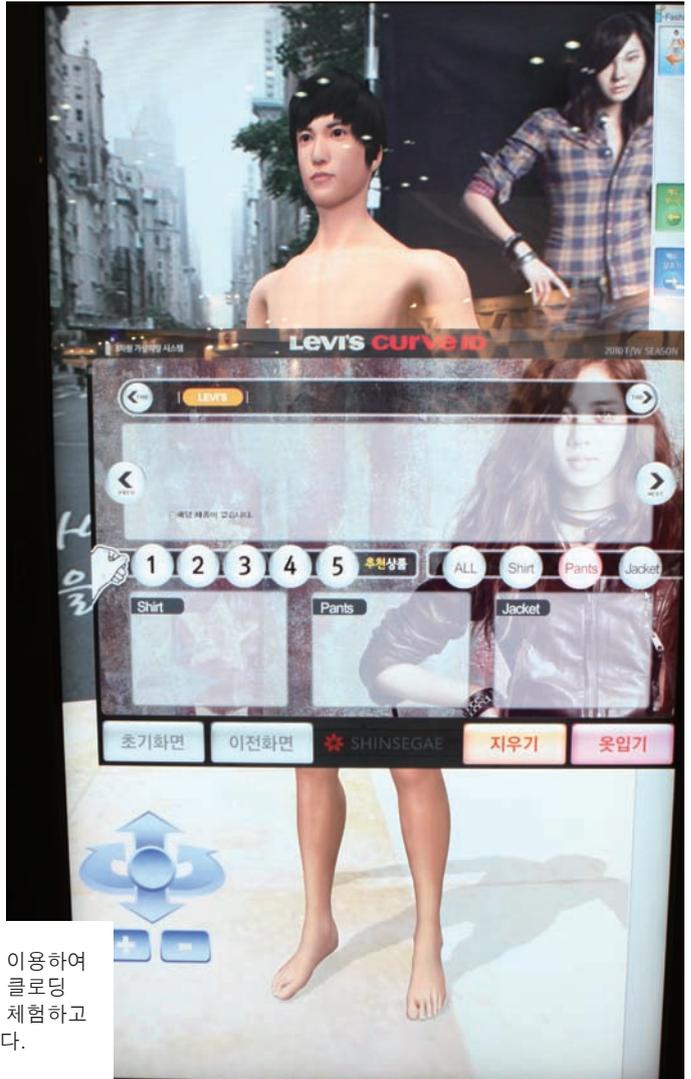


Digital Clothing

"3D로 패션을 쇼핑한다."

이제는 세상에서 단 한벌뿐인 자신의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3D 아바타 가상 의류 착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매자가 자신을 대신하는 가상의 3D 아바타를 생성하여 어울리는 옷을 하나씩 액츄에이팅하는 디지털클로딩 기술을 선보였다. 이 디지털클로딩 기술은 이미 앱으로 개발되어서 곧 상용화할 전망이다.

또한, 터치 스크린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상을 구매하는 매직미러 기술과 잡지나 패션화보에 있는 바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 후 구매하는 모바일 의류 쇼핑 기술도 눈길을 끌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으로 해외 관련기업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어, 국산기술의 글로벌화에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바타를 이용하여
디지털 클로딩
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다.





▲ GS건설이 선보인 세계 최초 스마트 폰용 홈 네트워크

Building IT

"스마트 IT와 건설이 만났을 때!"

2010 녹색성장산업대상을 수상한 GS건설은 Smart Green Xi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세계최초로 스마트 홈 네트워크를 스마트 폰에 연결하여 제어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전자전의 특징 중 하나가 융합인 만큼 스마트폰과 홈 네트워크 서비스의 융합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기존에 이미 인터넷 등 무선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홈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서비스는 있지만,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기술 기반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스마트폰과 접목시켰다는 것은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GS건설은 일산 자이 아파트 실시간 영상을 통해 안드로이드 폰 Xi 어플을 다운로드 후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실내온도, 조명, 시스템에어컨, 가스밸브, 욕조, 주차상태 등 6가지의 기능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이외에도 아파트 주변의 위치 및 교통정보를 알아보고 관리비를 스마트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할 전망이다. 또한, 버추얼빌더스는 융복합 공간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을 통한 3D공간 정보, 에너지 관리, 3차원 공간 시설물 관리 등 건설IT,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미래 공간기술을 선보였다.



"자동차도 IT이다."

Car Electronics



융합관 자동차부스에서는 현대모비스, 아이카 네트워크 등의 자동차제품 전문업체들이 다양한 쇼케이스가 있었다.

현대모비스는 지능형 배터리 센서와 융복합 LED 전조등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지오크로스는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를 선보였다. 증강현실전문개발업체 에이알비전은 자동차 정비를 전문적인 정비항목에 맞추어 가상으로 교육 실습하는 가상정비솔루션을 선보여 국내증강현실의 기술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 다양한 방식의 안전한 주행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 현대모비스의 지능형 배터리 센서





▲ETRI 화이트네스 시스템
 ▼레드로버의 3D 메디컬 부스

▲LG헬스케어시스템
 ▼레드로버의 3D메디컬 이미징 시스템

'스마트병원 Dr. IT를 소개합니다'

Medical treatment

IT와 융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의료 기술이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암과 같은 어려운 수술을 위한 3D영상기술의 연구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는 3D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실습을 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선보였다. 정맥주사 실습 시뮬레이터는 3D 모니터를 통하여 정맥주사를 시연하는 솔루션으로 실제 병원에서 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주사 감도 및 방향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화 "아바타" 제작에 참여한 바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3D 시스템 업체인 레드로버는 3D메디컬이미징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는 의사가 시술 시 사용하는 현미경에 3D장비 (MUX:좌우 영상을 합쳐 3D로 구현하는 장비)를 연결하여 시술하는 장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입체 영상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이제는 디지털 방송의 시대로'

Broadcasting



지상파의 방송의 제작 및 송출 방식이 201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디지털방송장비관(Korea Digital Broadcasting Equipment Pavilion)에서는 디지털 방송의 제작과 송출의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연주소 신호처리 장비를 선보인 'K2E', 국내 최초 3D 지상파 방송 송신기를 제작한 '진명 통신', 방송용 디지털 오디오 믹싱 콘솔 시스템 XDM-6400을 전시한 'Inter-M', LCD 모니터링 장비를 선보인 'TV Logic' 등의 디지털 방송장비 개발 업체들의 다양한 기술들은 대한민국 디지털 방송 기술 발전의 청신호를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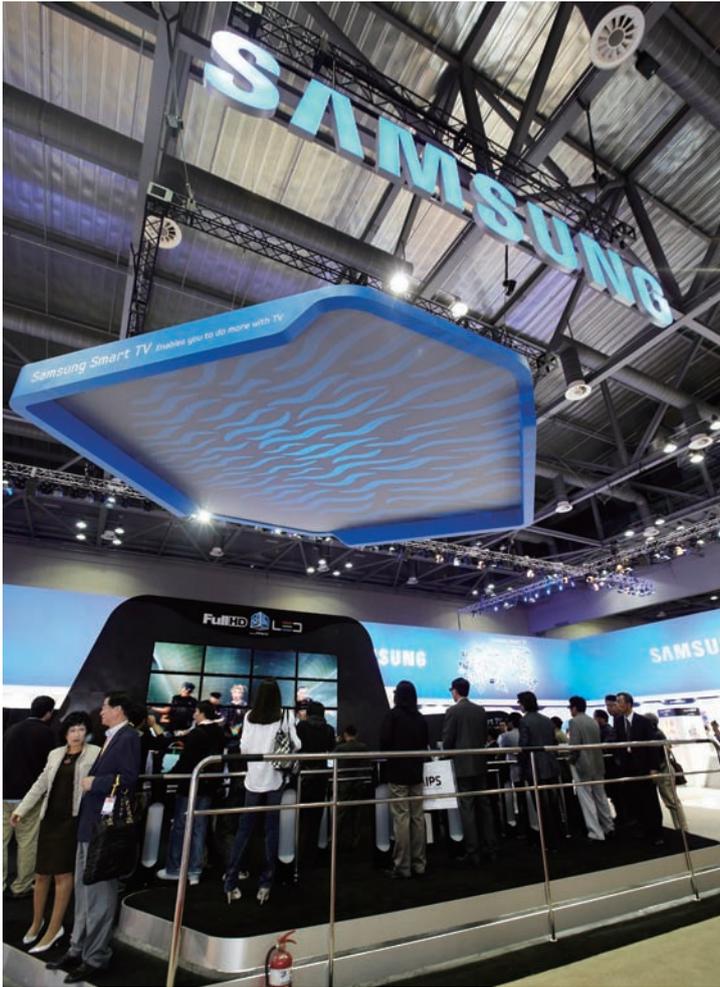




'3D - 영상이 곧 현실이 된다.'

Cutting-edge Trend

한국전자산업대전 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단연 3D이다.



▲삼성전자 3D LED TV 부스
◀삼성 3D카메라를
구경하는 관람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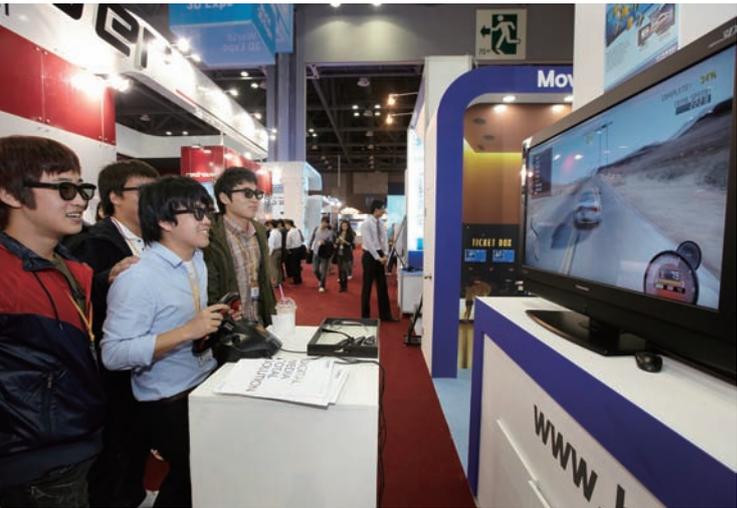
▲레드로버의 3D 큐빅박스
▼드림한스-3D 멀티미디어그래픽 컨텐츠

삼성전자는 3D TV의 대형화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3D 입체화질을 선보임과 동시에 프리미엄 사운드를 제공하는 명품 디자인의 3D 홈시어터, 능동형 방식의 싱글

엔진 싱글렌즈 3D 프로젝터 등의 신규 3D 제품을 공개하여 '3D AV=삼성'이라는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삼성의 3D TV 시연



▲3D게임을 즐기고있는 관람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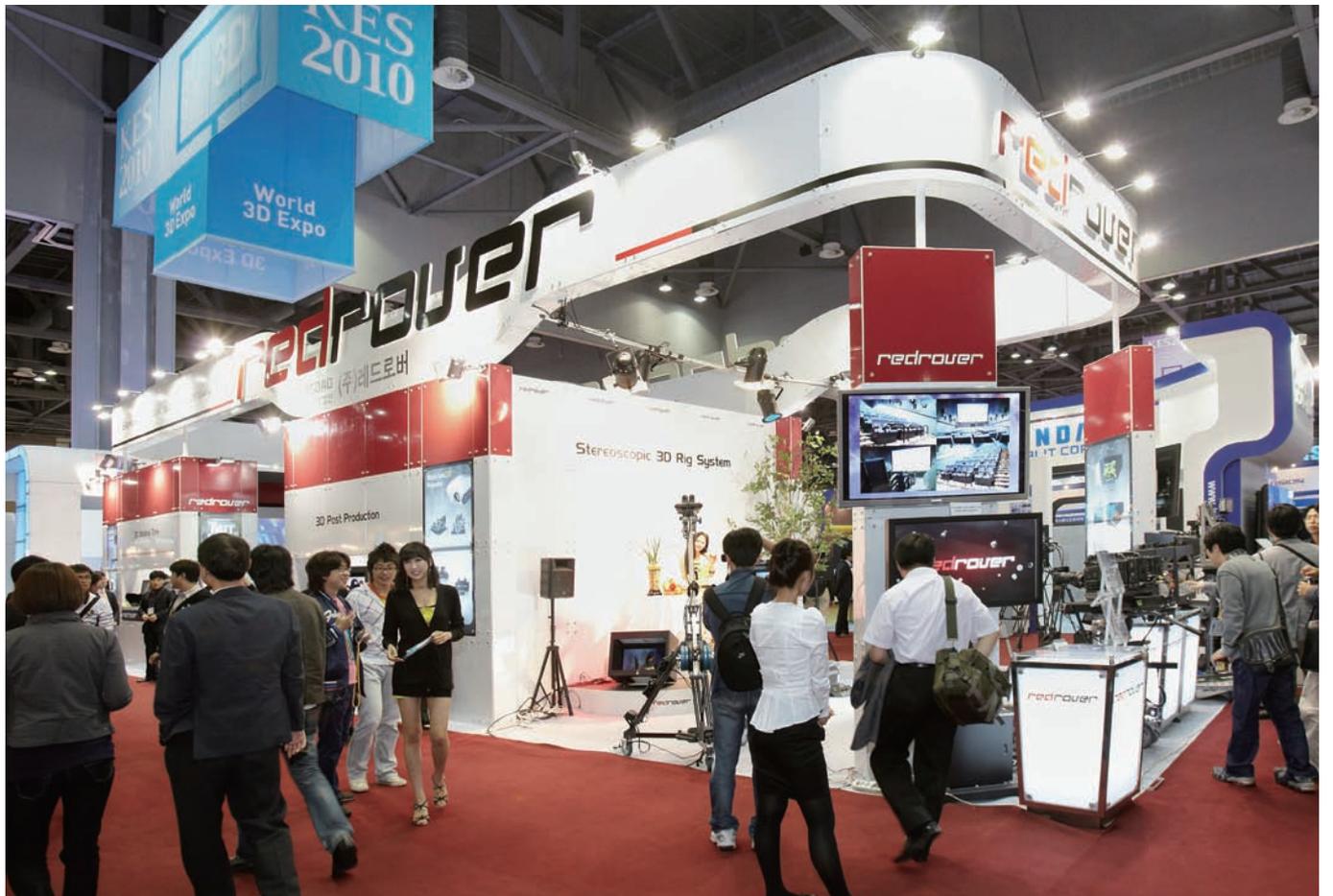


▲3D-드림한스

LG 전자는 3D Game Zone 을 통해 실감나는 체험공간을 마련 하였으며, 두께와 테두리 폭을 획기적으로 줄인 세계 최대 규모 72인치 Full LED 3D TV를 소개하여 다시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World 3D Expo관에서 레드로버와 파티마엔지니어링은

3D 수중촬영 시스템을, 드림한스는 3D입체 우주교육 콘텐츠 시리즈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3D 제품들을 대거 선보여 전문가들의 발길은 물론 일반인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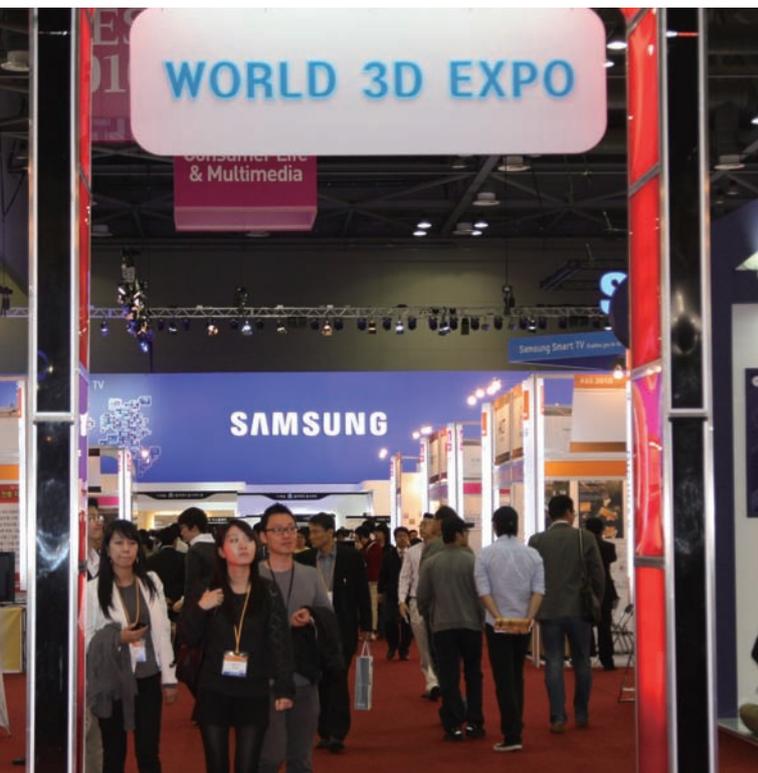




◀ 레드로버의
3D 카메라 시연



◀ 레드로버의
3D 현미경



Green IT

'IT도 숨을 쉰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세계가 공감하는 주제이다. 40여 개 업체들로 구성된 Green IT 관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였다.

대형정보시스템은 그린 PC 룸에 1개의 본체를 통해 다수의 PC를 사용하는 멀티 유저 솔루션을 선보였다. 삼성물산은 68개의 Green 기술들을 한데 모아 에너지에 중점을 둔 Zero Energy, CO₂ 방출을 억제하는 Zero Emission 그리고 IT 기술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Green IT라는 3가지의 컨셉을 기반으로 다양한 녹색기술들을 출시했다.

또한, GS 건설은 Smart Green Xi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고효율 자재 및 설비와 에너지 관리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와 더불어 KETI(한국전자부품 연구원)는 가정용 에너지 관리 및 Monitoring system을 선보이면서 앞으로의 에너지 효율 증대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었다.

조명산업도 녹색성장에 빠질 수 없는 산업 중 하나로서 최소 소비전력의 OLED 조명과 태양광 LED 등 다양한 저탄소 녹색성장 제품들이 출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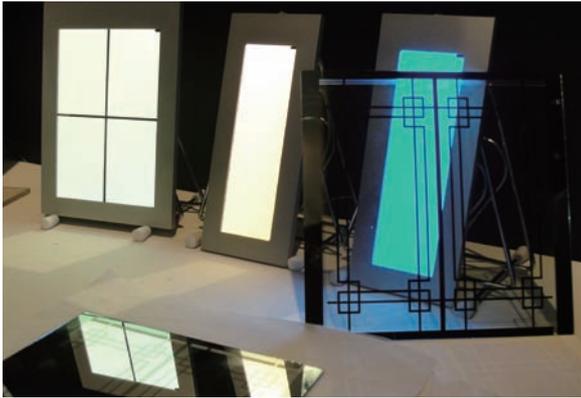
App World Expo

'이플리케이션 오대양보다 넓은 새로운 비디가 된다.'

요즘 대세는 스마트 폰! 제1회 App World Expo에서는 다양하고 유용한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여 무한한 앱 세계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는 앱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의 만남의 장이 열렸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댄스교습, 전자부품 앱 검색 시스템 "Partsfinder", 스마트홈, 통번역앱, 지하철장애인 도우미앱 등 많은 기업에서 App의 유용성을 일상 생활과 결합시키는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하였다.





◀ ETRI LED조명



LED

"한국을 기쳐 세계를 비춘다"

'LED'의 불빛이 점점 환해지고 있다. LED 분야는 국내 그린에너지산업 가운데 대외 기술 경쟁력이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수를 매년 늘려가면서 일본·미국과 함께 LED 3강으로 우뚝 올라섰다.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는 여러 회사들이 에너지 절약형, IT 융합형 LED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LED LFD 디스플레이부터 다양한 LED 제품들을 선보였고 LG전자도 3D OLED Nano Full LED TV 등을 선보여 많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또한 대한전광은

세계 최소 두께인 80mm LED 전광판을, 그리고 흥서산업은 LED를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 기법들을 연출하여 실·내외 인테리어 및 옥외광고, 전시부스장치 등 LED의 폭 넓은 적용성을 자랑했다.

▼ 흥서산업 LED부스



▼ LG전자 3D OLED부스





▲ 삼성 65인치 Full HD 3D LED TV

▼ 세계최소 두께 80mm LED 전광판을 선보인 대한전광 부스



▼ LG 나노 LED TV





Parts & Compon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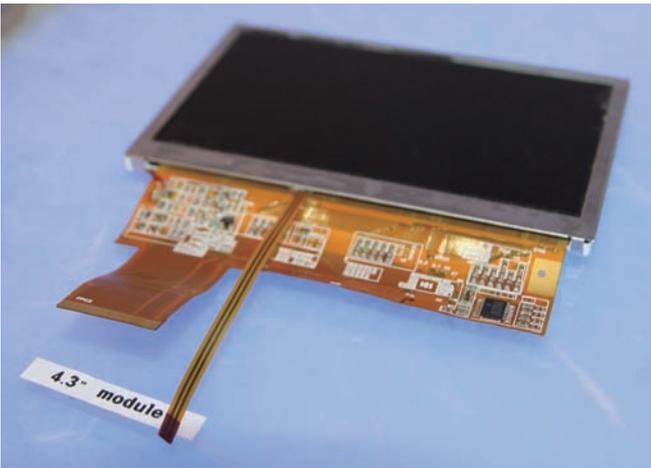
'Material & Component Sniper'

전자부품소재가 IT 산업 강국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다양한 디지털부품들이 소개되어 전자부품강국으로의 탈바꿈을 예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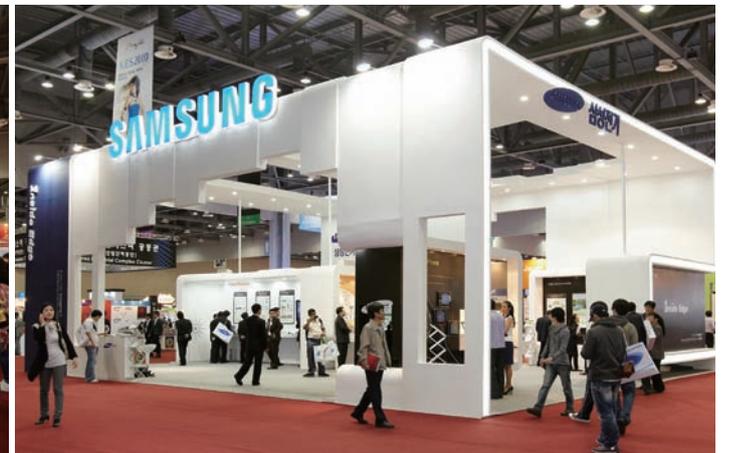
세계 5위 종합전자부품업체인 삼성전기는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MLCC분야 외 무선 영상 송수신기, 전자자동차 충전 모듈, 모바일 칩 부품, 친환경 차세대 부품 등 30여 종의 부품을 소개했다. LG 이노텍은 3D 카메라 모듈 등의 광학기술부터 LED, 태양전지 등의 친환경기술 및 지능형감성조명제어장치 등의 컨버전스 기술을 소개하였다. 일본기업인 태양유전(Taiyo Yuden)은 전시기간 내내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많은 한국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일본의 첨단부품들을 소개했다. 또한 전자부품연구원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용 리얼 3D 터치스크린 패널을 소개하여 관심을 모았고 산단공은 다양한 부품 소

재 기술 및 제품을 전시하여 해외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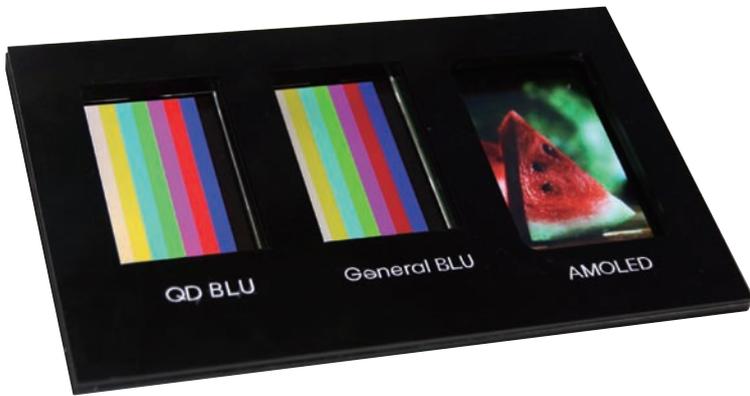
이파츠허브닷컴은 한중일 연합 전자부품 검색사이트로 제조 및 유통을 포함하는 세계최대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하여 전자제품의 구매 및 수출 대행, 해외 마케팅까지 이르는 토털서비스를 보여주었다. 한국 250만, 중국 1억, 일본 850만 여건의 부품 DB 연계를 통해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부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Partsfinder"를 소개했다.



◀ 4.3" LCD 모듈
▼ 이레테크 EMC스캐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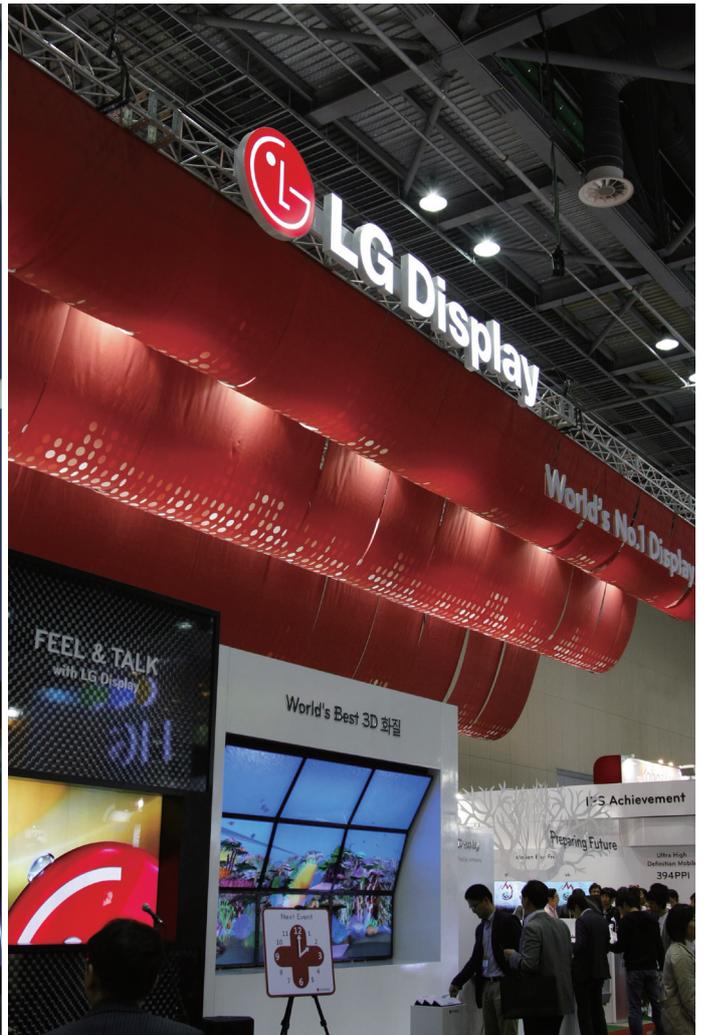
IMID 2010

대한민국디스플레이 세계를 날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가 주최하는 2010 IMID는 10개국 120개 기업이 참가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여 전지장내 중앙에는 이를 기념하는 홍보관을 마련하였다. 이번 IMID에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에스에프에이, 삼성코닝정밀소재, 동진세미켄 등 다양한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 소재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고속패널 구동을 이용한 3D TV/모니터/노트북PC용 LCD 패널, 투명 LCD 및 가상 홀로그램 LCD를 선

보이며 LCD 분야에서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펜타일 픽셀 구조 기술을 적용해 초 저소비전력으로 구동되는 32인치 TV, LCD 패널에 내장형으로 구현한 저항방식과 정전용량 방식의 '뉴 픽셀 스트럭처 펜타일(New Pixel Structure Pentile)' LCD 패널도 선보였으며, 온셀 터치패널 등 다양한 터치패널들을 소개하였다. 46인치 DID에 이은 세계 최박형 베젤폭 55인치 DID 등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는데, 특히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D)용 '아웃도어 LCD' 등 광고 및 공공 제품용 LCD 제품을 대거 전시해 공공 시장 공략에 대한 강한 의지



◀ 삼성 SDI 부스 ▲ LG 디스플레이 부스

를 내비쳤다.

LG디스플레이는 3D, IPS기술, 차세대 터치 기술 등의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한 발 앞선 기술력을 과시했다. LG디스플레이가 이번에 공개한 윈도우TV는 에지형 LED 방식의 투명 광원(Backlight)을 채용해, 조명이나 자연광이 있는 경우는 물론 주위에 빛이 없는 경우에도 화면의 표시가 가능한 47인치 제품으로, 평소에는 유리창으로 사용하다가 터치를 통해 투명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 날 LG에서 선보인 저소비 전력, 친환경 디스플레이인 전자종이(EP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및 컬러종이는 국내 관람객들과 해외 바이어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 차세대 플렉서블 및 투명 OLED 를 공개하여, 세계 속의 디스플레이 리더가 LG 임을 다시 한 번 알려 주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독일 머크의 한국 지사인 머크 어드밴스드 테크놀러지는 3D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최신 기술을 소개했다. 머크의 코니 사장은 이번 IMID가 새로운 디스플레이 모드와 동향뿐만 아니라 머크의 최근 개발 현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완제품은 물론 이를 구현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미래까지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이 이룩한 혁신적인 업적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언급 했다.

전시회와 함께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술대회,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해외 패널업체 구매담당자 30여명을 국내에 초청해 70개 국내 디스플레이 관련업체와 수출 증진을 도모하는 해외바이어 초청 1:1 무역 상담회도 열려 국내의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과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i-SEDEX

'No Power, Green Mem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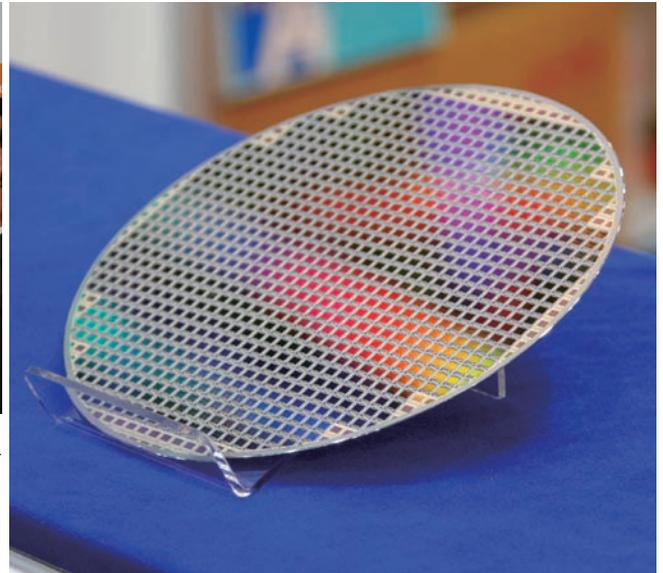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제12회 국제반도체대전(i-SEDEX)'가 작년에 이어 2010 한국전자전과 함께 일산 Kintex 에서 개최되었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설계·장비·재료 분야의 최첨단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술 경연장이다. 전시회에는 삼성전자·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기업과 알박·니콘인스트루먼트·HADCO 등 전 세계 7개국 30개 글로벌 업체 등 총 150개 업체가 참가해 450개 부스에서 각자 열띤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40나





▲홍보도우미가 김형식 국무총리에게 하이닉스 그래픽스 메모리를 설명하고 있다

D램 반도체 ▶



노급 2Gb DDR3 D램 제품 및 20나노급 64Gb 낸드플래시, 40나노 2Gb 모바일 저전력DDR2(LPDDR2)를 비롯해, 디스플레이용 디지털인터페이스·컨트롤전력관리반도체(PMIC) 등 우리나라가 처음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제품이 다수 출품돼 다시 한 번 반도체 강국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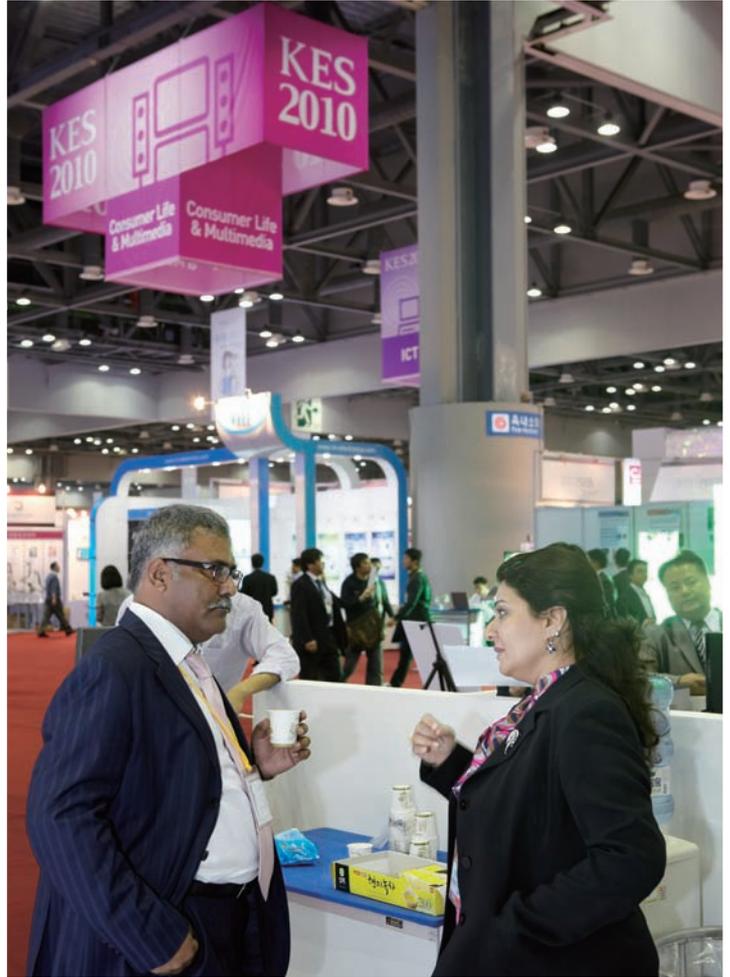
부대 행사로는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비즈니스 상담회, 국제세미나, 기술세미나가 열려 기술과 정보 교환은 물론, 활발한 비즈니스 교역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13일부터 이틀간 별도로 마련된 무역 상담관에서 미국 인텔, 중국 SMIC, 대만 ASE 일본 후지쯔, 중국 BOE 등 해외 20개사 구매담당 임원이 초청되어 국내 회사와 일대일 수출 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개막일인 12일에는 반도체 차세대 공정장비기술 세미나, 13일에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정기술세미나,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페어'가 진행되었으며, 14일에는 반도체배선기술세미나, 반도체장비표준교육, ISMP2010, 시스템반도체 잡페어 융복합공동연구워크숍과 아날로그반도체 리더스 포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국제반도체대전에 '그린메모리'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그린DDR3(Double Data Rate 3)와 그린SSD(Solid State Drive)·그린LP(Low Power)DDR2·그린G(Graphics)DDR5 등 4개 친환경 메모리반도체 제품 군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메모리인 P램과 함께 그린메모리로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저전력 솔루션 전략을 공개하였다. 삼성전자는 일반 메모리와 그린메모리를 탑재했을 때 소비전력 차이를 쉽게 알리기 위해 데스크톱과 서버 등 PC를 이용한 비교 시연도 진행했다. 하이닉스는 40나노급 2Gb 모바일 LPDDR2와 40나노급 2Gb DDR3 DRAM을 공개하였고 동부하이텍은 18um BCDMOS 복합고전압소자를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레이저 드릴링(Laser Drilling) 기술을 활용한 적층형 패키지를 세메스가 반도체 모든 공정에 대응 가능한 세정설비(IRIS, BLUE ICE)를 공개하였다.

바이어특집

이번 2010한국전자산업대전은 인도,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수 많은 바이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방문한 바이어들은 특히 차세대 기술을 선보인 한국업체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들의 우수한 기술을 수입하여 자국에서 사업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India

차세대 기술을 인도하는 한국

Hitech Lighted Limited.co는 인도에서 친환경에너지 절약형램프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로 조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시장에는 제 관심을 사로잡는 제품들이 너무 많더군요. 특히 IT 보안관련기술과 제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IT 보안관련제품은 전 산업 전반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솔루션이라 그 시장성이 크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뒷받침되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모든 산업전반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GSM, CDMA, 3G "Repeater"를 생산하는 FROG CELLSAT PVT.LTD의 Mr. Ajay Kumar Pathak 구매담당 매니저는 "한국은 현재 우리 회사가 수입하는 부품 중 가장 큰 수입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기 전 까지만 해도 우리의 "Duplexer"는 성냥갑 크기만 했는데 지난해 KES에서 발견한 제품 1/4에 불과했죠. 그래서 그 한국 제품을 수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좋은 가격으로 높은 성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말하면 큰 형님이라고 할 수도 있죠."라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도 가격 경쟁력이 좋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을 선보이는 공급원을 발굴하고자 다시 방문했다고 한다. 또다른 인도 모바일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기업인 VNL(Vihaan Networks Limited Co.)의 Ratan Singh 씨는 "한국은 이미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와 같이 선진국 선상에 올라 개발도상국들을 도울 수 있는 능



Hitech Lighted Limited사
Rupinder Singh Sachdeva 이사

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국의 기술력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최고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전자산업대전을 잘 알고 있어 금번 한국의 모바일 위성 솔루션 전문 회사들을 찾기 위해 왔으며 현재 좋은 파트너와 협상을 진전중입니다."고 말했다.

USA

'미주시장의 Korea IT 열풍'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전자산업대전을 방문한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에 본사를 두고 서울 사무실을 개설한 DKO의 토마스 부사장의 한국전자산업대전을 관람하는 눈은 누구보다 매섭고 날카로웠다.

"DKO는 국제 컨설팅 회사로 미국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 및 기술을 찾기 위해서 한국전자산업대전을 다시 찾았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자산업대전은 외국 소규모 바이어들에게 편리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있으며, 또한 전시회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출품되었다고 평가된다고 이번 전시회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그는 "한국시장은 미국보다 유럽과 아시아 각 나라들과 더 활발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이루어진 무역상담

파사데나 사
Thomas Kim 부사장



회를 통해 보다 활발한 한미비즈니스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토마스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특별히 그린IT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France

'3D Industry Going Up with Korea'

프랑스에서 새로운 3D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기술 및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Dimension3D-Expo의 Stephan Faudeux 이사는 영화, 방송, 비디오게임 등의 3D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3D기술과 합작하여 할리우드 기술을 따라잡기위해 한국전자산업대전을 방문하였다. "한국 3D 산업은 삼성, LG라는 하드웨어 양대산맥을 주축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D솔루션 분야도 2010년을 기점으로 급성장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년간 3D산업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시도하여 다양한 관련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직접 한국의 3D 기술을 경험하면서 프랑스에서 개최할 3D 전시회에 한국전자산업대전과 협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며 한국과 프랑스간 3D 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Faudeux씨는 "프랑스는 콘서트와 테마파크 뿐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3D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3D 방송 시스



Dimension3D-Expo 이사 Stephan Faudeux

템 기술은 자랑할 만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협력하여 3D Expo 를 프랑스에서 성공리에 개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한국과 3D 비즈니스 협력이 양국의 3D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그의 포부를 전달했다.

Peru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찾다'

페루의 S.A.V Ingenieros S.A.C의 Igor Saravia Aguilar 부장은 페루의 보안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S.A.V Ingenieros S.A.C는 18년 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회사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널리 사용되는 기술을 보유한 튼튼한 업체로 자리잡았다. Aguilar 부장과 Medina씨는 현재 페루는 이웃나라 콜롬비아와 비교하여 열악한 사회안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이 한국전자산업대전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페루는 절도, 폭력, 금품갈취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정부는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루의 처벌 수준은 매우 약한 수준으로, 범죄자들이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이에 페루 정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법적인 해결 이전에 기술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좋은 기술과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페루 S.A.V Ingenieros S.A.C 부장 Igor Saravia Aguilar(오른쪽), 부장 Jorge Cossio Medina(왼쪽)

것이지요.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높은 기술의 보안시스템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라스타 이사
Alexander Semeyuta(왼쪽),
기술이사 Andrey Dvoynshev(오른쪽)

'IT 최고, 예의까지 최고!'

Russia

한국전자전 한국-러시아 간 본격적인 비즈니스 물고를 튼다.

Alexander Semeyuta 씨는 이번이 벌써 4번째 한국 전자전 방문이다. 매년 방문 때마다 한국과의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겨 올해도 빠짐없이 한국전자전을 방문했다. 함께 방문한 Vetrastar의 Andrey Dvoynshev와 Aatoliy Shestak씨는 이번이 한국전자전 첫 번째 방문으로서 개막식부터 그들이 상상한 이상의 것을 보았다고 한다.

Andrey Dvoynshev 기술이사는 "중국이나 홍콩 등에서 열리는 많은 전시회를 다녀보았지만 한국전자전의 개막식처럼 화려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개막식은 처음 보았습니다. 특히 여성댄스그룹 "씨크릿"의 폭발적인 공연은 무대로부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운 무대였습니다. 어느 전시회를 가도 이렇게 A급의 엔터테인먼트의 무대를 준비하는 전시회는 거의 없거든요." 라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전시장을 둘러본 후 함께 온 동료들과 제가 동시에 가지게 된 생각은 한국전자전에는 정말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부품, 휴대폰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업

체 중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여 비즈니스 제휴를 통해 러시아현지에 제품을 소개할 생각입니다."고 말했다.

Andrey Dvoynshev 기술이사와 함께 방문한 Antoliy Shestak 이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국제행사는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바이어의 입장에서, 언어로 인한 원활한 대화가 어려워서 좋은 비즈니스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자전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러시아통역이 지원되어 매우 편리했습니다."라며 "전시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서둘러 돌아다녀도 모든 제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시장 세팅을 동종계열의 제품과 기술끼리 묶어서 전시를 한다면 좀더 많은 제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며 한국전자전2011에 바라는 점까지 전달했다.

러시아 바이어들은 한국과의 교역에 대해 아주 낙관적인 의견을 전달하였고 내년에도 역시 러시아의 많은 바이어가 한국전자전을 방문 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SPMash의 Director Sergey I. Lapinsky 씨는 UKB (Unikor Battery), S&T Global, MECSTECH, SVCo 등 여러 회사들과 상담을 나누었다. SPMash 는 러시아내 필름 히터를 만드는 회사이며, 그들의 우수한 필름히터는 칠레, 에콰도르, 프랑스, 한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모든 회사들과의 상담은 저희 SPMash 입장에서는 의미 있습니다. 저는 본사에 돌아가 각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대사가 되어 내년에 돌아올 때쯤에는 좋은 성과를 맺어 한국 업체들과도 반갑게 재회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러 Trade Agent 인 JSC Angel 의 Maria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의 미용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Maria씨는 욕구술이 들어있는 헤어 드라이어, 각종 마사지 기,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체험해보며 실제 사용 후기를 러시아에 돌아가 전달하여 마케팅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러시아에는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미용기구들이 없어서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제품은 러시아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난 한국 업체들이 러시아의 시장을 잘 파악하여 가격 조정을 조금 해준다면 제 역할이 훨씬 쉬워질 것 네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한국 관계자가 없이 EPOS, ENERGO-SNAB, IAT 등 러시아를 대표하는 회사들의 대표자들이 한데 모여 한국 업체들과의 성공적인 상담 내용을 서로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ENERGO-SNAB의 경우 이미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와 무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처음 방문한 회사 대표자들에게 한국 업체와의 상담을 성사 시키기까지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도 하였다.



러시아 RISDE의 Constantine 씨는 Testron과의 수출 상담에서 Harness 테스터, Backplane 테스터, Fuse box 테스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RISDE씨는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많은 제품을 보고 한국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의 한국 업체들과 상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이번 KES에서 만난 회사들과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다.



JSC STEP의 Vladimrovna씨는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Korea IT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한국에 오면서는 많은 한국 업체들을 만나게 되리라 기대 하지 않았으나 오전 열 시부터 45분짜리 미팅이 5개나 잡혀있는 스케줄을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Eye Max, GeoCross, Withsolution, KIT Korea 와 상담을 하였고, 조금 뒤에는 Mocomtech 라는 회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제품들은 기술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에서 모두 우수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회사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 한 품목들이 몇 개 눈에 띄었고, 그 제품들에 대해 빨리 돌아가서 회의를 하고 싶네요." 라고 말했다.



Francois Barlinckoff (네덜란드)



Daniela Yankova (불가리아)



Elleuch Samir, Mounir Ferjani, Mohamed Mahjoubi (터키)



Antonina Krasnova와 통역자 (러시아)

Smart Korea 2010

2010한국전자산업대전은 지식경제부 주최로 'IT 대한민국의 다음 10년(The Next Decade of IT Korea)'을 주제로 한 'SMART KOREA 2010' 행사를 개최했다. Smart Korea2010 은 국내외 저명 석학과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IT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으로서 'Creative Futures Forum'을 신설하였고, IT관련 7개 부처가 참여하는 'IT융합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Smart Korea 2010 은 '2011 IT산업전망 컨퍼런스'와 해외 바이어 초청 '글로벌 협력 세미나'도 함께 개최하였다.



Creative Futures Forum

Creative Futures 포럼에서는 국내외 석학, CEO, 전문가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T산업비전 2020'이 발표하여 대표적인 미래 Code인 '융합'과 '창의'를 키워드로 지구의 미래, IT의 미래, IT Korea의 미래를 전망하고 전략을 논의했다. 지식경제부는 또 2020년 3대 IT 키워드인 '지능화'(Smart), '지속가능성'(Sustainable), '인간중심'(Human Centric)을 기초로 한 10대 IT Mega Trend를 제시했다. 이어 지식경제부는 '역동적 IT, 창의적 융합으로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IT수출을 올해 1500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에 30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려 IT수출 3대 강국(현재 5위), IT융합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IT Convergence conference

IT Convergence conference는 우리나라 IT 및 융합에 대한 소관부처의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기술 및 산업을 조망한 자리로 7개 정부부처가 한자리 모여 IT융합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오해석 청와대 IT특별보좌관은 "스마트 코리아 정책은 잘 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스마트카, 스마트TV, 스마트로봇 등 스마트 명품산업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국정지표를 실천하기 위한 '스마트 코리아' 비전을 제시한 기조연설로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렸다.

다음으로 정만기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IT융합 확산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정 정책관은 "내년에 IT융합 관련 산업원천기술개발에 667억 원, 상용



드림 컴퓨터 CEO,
롤프 젠슨

IBM 왓슨 리서치 센터 디렉터,
데이비드 칸 박사

뉴로스카이 CEO,
스탠리 양

가트너 리서치 수석 부회장,
피터 쏬더가드

화 기술개발에 145억 원, IT융합인력양성에 250억 원이 투입된다"며 "IT융합 핵심부품 개발에는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에 150억 원, 4세대용 베이스밴드모뎀 개발에 191억 원이 쓰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IT융합추진 성공사례도 같은 자리에서 소개되어 IT융합 기술과 정책 사례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2011 IT Industry Prospect Conference

2011 I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IT 기술, 시장 전망 및 기업 전략 등 기업의 차년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IT관련 핵심정보 제공의 장이 마련되었다. 2011년의 IT기술, 시장 전망 등의 기업들이 내년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IT관련 핵심정보가 제공됨과 동시에 국내외 IT전문가, 기업인 등 1200명이 한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IT산업 10대 이슈와 전망과 주력 IT산업별 내년도 전망 등이 한 자리에서 공개되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전상헌 부회장은 "내년 세계 IT 소비지출이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회복과 함께 전년대비 3.9% 증가할 것이며, 세계 IT 제품 수요는 5.1% 증가할 것이다. 내년 국내 IT 산업은 생산은 3.1% 증가, 수출은 5.8% 증가한 15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날 발표

된 내년의 전망치는 주요 업체의 전문가 조사와 국내외 연구기관의 전망치, 그 동안의 통계를 활용한 분석모델을 적용해 작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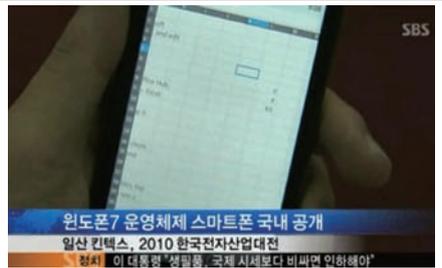
Global Cooperation Seminar

Global Cooperation Seminar는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 해외 바이어, 해외진출기업인과 IT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상호 협력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어, 국내 IT업체의 해외 진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꼽혔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IT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미래 성장동력 IT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edia Coverage



한국IT현주소
정시 우재창(민) 'KB, 신진업에 관련업체에 특혜 대응'



윈도폰7 운영체제 스마트폰 국내 공개
일산 킨텍스,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
정시 이대통령 '생활밀착, 국제 시제품보다 빈번한 인형해야'



"IT기술 한자리에" 한국전자전 개막



'IT is my life'라는 주제로 12개 국가 참여



스마트TV 현실화... 스마트 라이프 '성큼'

스마트TV의 대중화... 스마트 라이프의 실현... LG전자는 스마트 TV를 선보이며 스마트 라이프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LG전자는 스마트 TV를 선보이며 스마트 라이프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LG전자는 스마트 TV를 선보이며 스마트 라이프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한국전자산업대전 킨텍스에서 개막 12월 27일 개막한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삼성전자가 부스를 운영한 모습이다. (사진: 연합뉴스)

3D·스마트·축각기술 중소기업 저력 '뽐내'

전자·IT공간의 융합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전자산업대전 2010은 국내 중소기업의 저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자리였다. 특히 3D·스마트·축각기술은 물론 환경친화적 소재 개발은 중소기업에도 유망하다. 많은 중소기업은 자사의 최첨단 기술을 국내외 박람회까지 소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미리보는 CES 2010 (4-끝) 전자부품

순백 빛 구현 '퀀텀닷 BLU' 공개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등 그린제품도 다수 출품
2010년 미국 전자산업대전에서는 국내 부품업체들의 차세대 제품들을 이 대거 공개했다. 세계 5위 종합부품업체인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바일, 칩 부품, 전원장, 차세대 부품 등 30여 개 제품을 소개했다. 또한 IT 분야에도 발도 향하여 여러가지와 중심 기술인 3D, 스마트, 나노기술이 무궁무진한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소재 개발을 위한 제품들도 선보였다.



한국전자산업대전 12월 27일 개막한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운영한 모습이다. (사진: 연합뉴스)

"TV·LCD 곧 회복... 반도체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

전자대전 참석 CEO들 전망
내년 상반기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TV·LCD 배럴 건설, 반도체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 지속. 12월 27일 개막한 킨텍스에서 개막한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참석 기업들의 CEO들이 반도체, TV·LCD, LCD 배럴 건설, 반도체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 지속. 12월 27일 개막한 킨텍스에서 개막한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참석 기업들의 CEO들이 반도체, TV·LCD, LCD 배럴 건설, 반도체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 지속.

전자CEO "반도체값 더 떨어진다...LCD·TV 4분기 회복"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
관호철 사장 "관음이 최대 변수" 윤부근 사장 "TV 내년 15%성장"
"반도체 값이 떨어질 것이다." (김연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사장) "LCD 배럴은 시장이 가격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김영수 LG 디스플레이 사장) IT 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12월 27일 개막한 킨텍스에서 열린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에 참석한 국내 전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일제히 양방향 전망을 내놓았다. TV와 LCD 배럴은 4분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27일 개막한 킨텍스에서 열린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에 참석한 국내 전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일제히 양방향 전망을 내놓았다.

영화 '아바타' 이어 3D TV 물결 3D혁명이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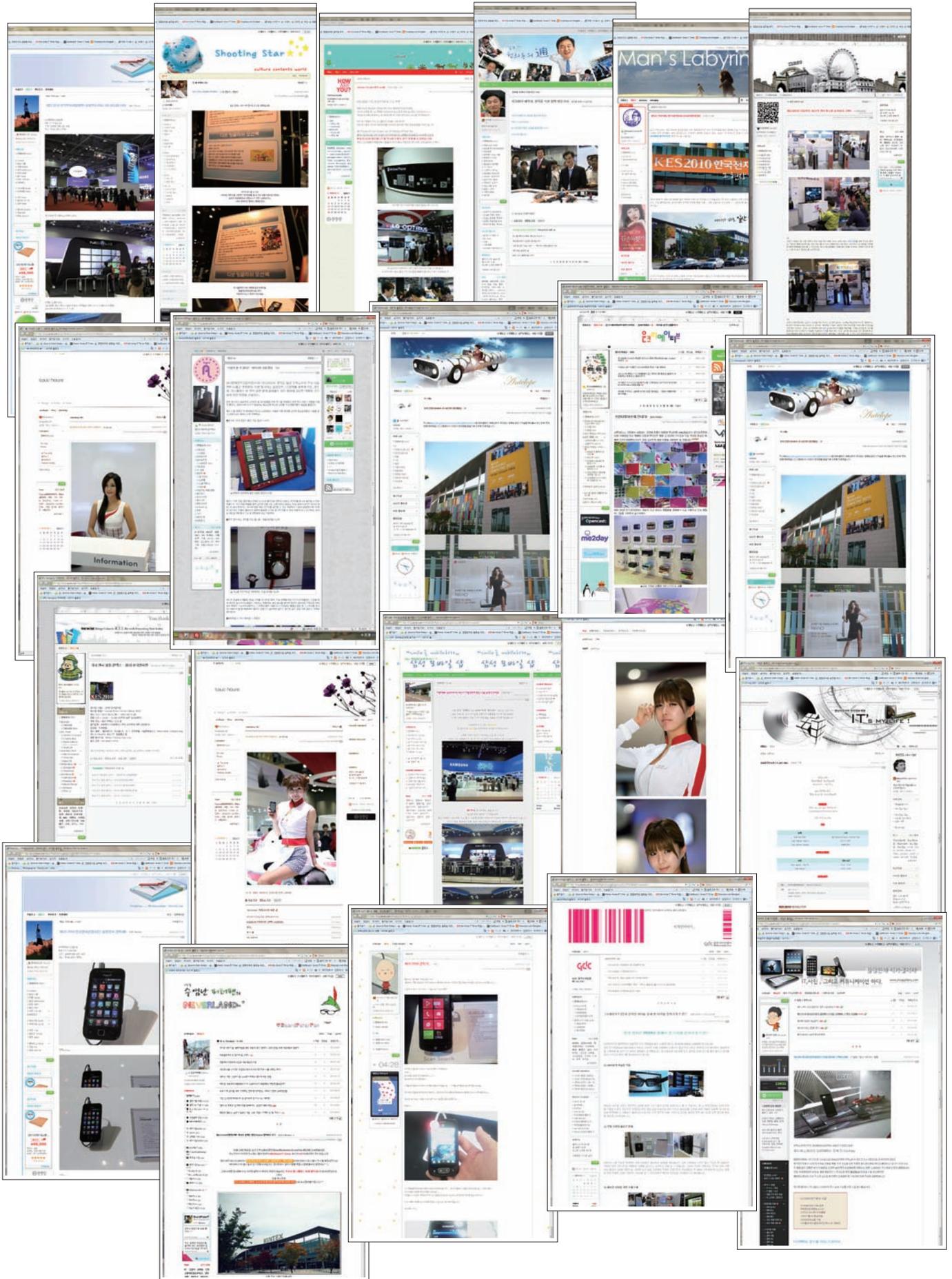
한국전자산업대전 '3D'에 초점
유리이 투명스크린도 주목
"아바타" 열풍이 몰고 온 3D TV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LG전자는 3D TV를 선보이며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LG전자는 3D TV를 선보이며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최대 IT 전시회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 12월 27일 개막한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KES 2010)에서 LG전자 홍보 도우미가 초고해상도 LED TV를 이용한 디스플레이쇼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12개국 900여개 업체가 참여해 15일까지 진행되는 국내 최대 IT 전시회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초고해상도 TV와 스마트, 태블릿PC 등 첨단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최대 IT 전시회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 12월 27일 개막한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KES 2010)에서 LG전자 홍보 도우미가 초고해상도 LED TV를 이용한 디스플레이쇼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12개국 900여개 업체가 참여해 15일까지 진행되는 국내 최대 IT 전시회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초고해상도 TV와 스마트, 태블릿PC 등 첨단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2010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Statistical Results

· 참가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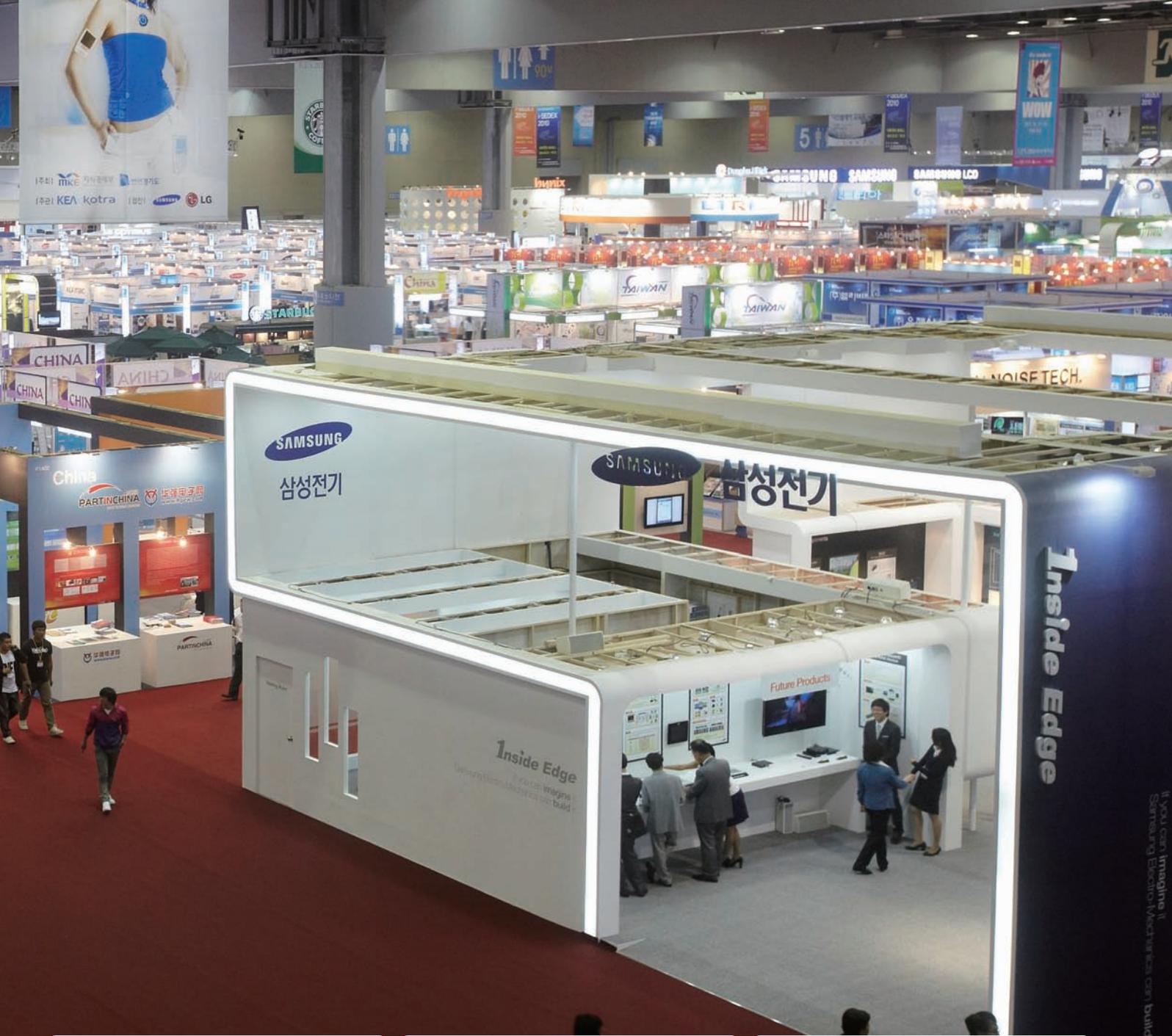
면 적 : 53,541m² (킨텍스 5개홀, 전관)
 참가업체 : 12개국 750개사 2,328부스
 참 관 객 : 약 55,242명(해외바이어 1,823명)
 상 담 액 : 약 16억 달러

· 보도

KBS 9시뉴스, SBS 8시뉴스, 연합뉴스 등 5건
 한경·매경·전자신문·DT, 조/중/동 등 보도 기사화 321건
 블로그 등 1인매체 : 500건

· 상담회 및 컨퍼런스

그룹상담회 : 인도, 러시아, 중국 유통상, 반도체 관련 바이어
 초청 세일즈페어 등 10건
 컨퍼런스 : 스마트코리아 3D 엑스포, 그린 IT 등 20회
 이 벤 트 : App World Expo, 브레인레이싱, Job Fair 등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1

- 기 간 : 2011년 10월 12일(수) ~ 15(토), 4일간
- 장 소 : KINTEX (일산 킨텍스)
- 규 모 : 53,541m²

참가신청

참가비

| 구분 | | 9m ² (1부스) |
|------|----|-----------------------|
| 독립부스 | 국내 | 240만원 |
| | 국외 | US\$ 2,600 |
| 조립부스 | 국내 | 280만원 |
| | 국외 | US\$ 3,200 |

독립부스 [SPACE ONLY]

- 면적만 제공, 장치는 참가업체 자체 시공

조립부스 [SHELL SCHEME]

- 면적 및 기본 장치공사 포함 (기본시스템, 파이텍스, 간판, 조명)

참가비할인혜택

조기신청할인

- 10% 할인 : 2011년 3월 31일(목)까지
- 5% 할인 : 2011년 5월 31일(화)까지
- ※기한 내 참가비의 50% 이상을 납부한 참가업체만 해당

VIP고객 추가 할인

- KES 3년 연속 참가 중소기업은 추가 5%할인 (2009, 2010, 2011 연속 참가)

참가신청방법

제출서류 : 참가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 입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 : 온라인 신청 www.kes.org

신청기한 : 2011년 6월 30일까지 선착순 신청접수

참가비 납부

납부기한 : 2011년 6월 30일 (목)

입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국민은행 | 598601-04-001578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 ※ 반드시 업체명으로 입금, 송금수수료는 참가업체 부담
- ※ 참가신청 시 참가비의 50% 납부하고 납부기한까지 잔금납부

Electronics
Grand Fair 2010
October 12(Tue) ▶ 15(Fri)

KES

www.kes.org

ISEDEX

www.isedex.org

IMiD

www.imidex.org

Sponsors |



Organizers |



전시품목

• ICT

Tablet PC · Telecommunication · Smartphone · Network Solutions · PDA · Notebook · PC · Server · Solution · S/W · Storage · Peripheral Device · Antennas

• Imaging and Solutions

Beam Projector · Imaging Machine · Digital Camera · Printer · Camcorder · Memory Solutions · 3D Display Device · 3D Camera · 3D Scanner

• Multimedia and Home Entertainment

TV · Smart TV · 3D TV · IPTV · Home Cinema · Monitor · HiFi · Games · MP3 · Hands-free · DMB · Smartphone Solution

• Living Consumer Electronics

Refrigerator · Air-conditioner · Vacuum Cleaner · Washing Machine · Dish Washer · Coffee Machine · Electric Toaster · Beauty Care Appliance · Kitchen Appliance

• Car Electronics and Securities

Navigation · Black Box · Car Electronics · CCTV · Network · Bio or Signal Capture · Cyber Security · Collision Avoidance Technology

• Convergence and Other applications

Broadcasting Equipment and Systems · Green IT · U-health · Building Solution · Digital Clothing · Product Design · Robot

• Modules, Parts and Materials

LED · OLED · LCD · Solar · PCB · MLCC · Capacitor · Resister · SoC · Sensor · Switch · Embedded Module, Measurement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1

FOR MORE INFORMATION, <http://www.kes.org> | Tel 02) 6388-6062~8 | kes@kes.org

